



Hello, my name is Sr. Jeanne Bartholomeaux, second child of six for Katherine (Kitty) Kern and Paul Bartholomeaux. My father and mother had a connection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t Saints Peter and Paul parish in Tucson. I grew up with three sisters and two brothers. We loved hiking, camping and fishing and Friday family Bingo. All of this gave me an appreciation for beauty of nature and family. Young Elizabeth Seton’s journal quote, “Look up to the blue heavens and love Him”

always stirred in me the awareness of God’s incarnational presence in the world’s beauty.

It was at Salpointe H.S. that I observed among the three orders of sisters on the school’s faculty, the joyful, engaging spirit of the Sisters of Charity. It was also there that I found an attraction to art with Sr. Leonard Marie (Miriam Belfer). After a year of art classes at the U of A, I entered the novitiate at Seton Hill. My group included Sr. Sung Hae Kim, one of the first South Korean postulants. Attending Seton Hill College, I continued to pursue the study of art with Josefa Filkow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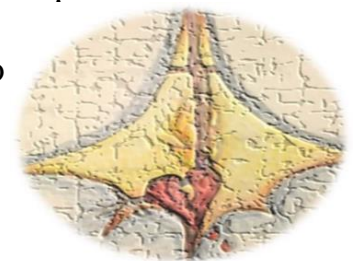


Graduate studies at ASU in Art Education and Fiber Arts, especially weaving and stitchery, influenced much of what I have done as an artist.



Part of my ministry as a Sister was as a teacher in 3rd grade, high school art, and high school religious studies, much of the time at Salpointe H.S. Tucson. I am passionate about teaching when I teach. Interwoven among the years of teaching, I served in leadership as a General Councilor, Director of the Western Region, a Vicar for Religious in Diocese of Tucson, and Religious Education Coordinator. When time permits, I produced art. Most recently, with embroidery, I designed a series of seven “Hearts Marked by the Blood of the Lamb”...honoring people who by the way they live are connected to the Sacred Heart of Jesus. Graphics and drawing have also been ways for expression. I am passionate about art when I have the time to create. I am especially grateful for God’s gift of creativity to give

ideas visual expression, communicating truth and beauty.



ideas visual expression, communicating truth and beauty.

At a gathering of Sister of Charity artists, poets, musician, authors, and photographers we wrote a statement explaining how the ministry of fine arts furthers the mission of the Sisters of Charity. **Art ...”reveals the reality and beauty of God's love in the world...through the prophetic and healing power of the arts the creative word of God transcends the barriers of human language and transforms the human spirit.”**



안녕하세요! 진 바르톨로매오 수녀(Sr. Jeanne Bartholomeaux) 입니다. 저는 어머니 캐서린 칸과 아버지 폴 바르톨로매오(Katherine (Kitty) Kern and Paul Bartholomeaux) 슬하에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투산의 성 베드로와 바오로 본당(Saints Peter and Paul parish, Tucson)에서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과 인연이 닿았지요. 저와 세 자매, 두 명의 남자 형제, 저희 6남매는 함께 자라면서 하이킹과 캠핑, 낚시를 좋아했고 금요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빙고 게임을 했어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자연과 가족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엘리사벳 씨튼의 말씀은 아름다운 이 세상 안에 강생하신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을 제 안에 항상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셀포인트 가톨릭 고등학교(Salpointe H.S.)를 다닐 때 학교에는 세 수도회의 수녀님들이 교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신을 알게 되었어요. 또, 바로 그 학교에서 레오나르도 마리 수녀님(Sr. Leonard Marie)과 함께하며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미술을 1년 동안 공부한 후 수녀회에 입회하여 씨튼 힐의 수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한국 수련자인 김승혜 수녀님도 저희 그룹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씨튼 힐 대학에서 조세파 필코우스키(Josefa Filkowski)와 함께 미술을

공부했어요.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 교육과 섬유 예술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실을 엮어서 짜고 수를 놓는 위빙과 스티치에 대한 연구가 예술가로서의 제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사도직으로는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쳤고, 고등학교에서 미술과 종교를 가르쳤어요. 대부분의 교직 생활을 투산의 셀포인트 고등학교(Salpointe H.S. Tucson)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넘치지요. 교직을 하면서 총이사직을 했고, 수도회 서부 지부 지부장과 투산 교구의 수도자 책임, 종교 교육 책임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면 작품 생활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예수성심을 드러낸 사람들을 기리는 'Hearts Marked by the Blood of the Lamb(어린 양의 피로 물든 마음)'이라는 자수로 표현한 7개의 연작을 마쳤습니다. 또, 그래픽과 그림으로도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또, 창작의 시간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나지도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창조성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수녀회의 화가, 시인, 음악가, 작가 및 사진 작가들이 함께 한 모임에서 저희가 쓴 선언문은 순수 예술 사도직이 어떻게 사랑의 수녀회의 선교사명을 발전시켜 나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술은.... "이 세상에 하느님 사랑의 실제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예술가들의 예언자적이고 치유하는 힘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의 말씀은 인간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간 정신을 변화시킨다."